

新羅冠의 成立과 始祖廟 祭祀

李松蘭*

- I. 머리말
- II. 新羅 麻立干時代와 高塚文化
- III. 皇南大塚 직각 맞가지식 新羅冠의 출현과 始祖廟 祭祀
- IV. 新羅冠의 나무·사슴뿔·寶珠의 상징성과 治世理念
- V. 女性墓·地域古墳 出土 신라관의 사회적 의미
- V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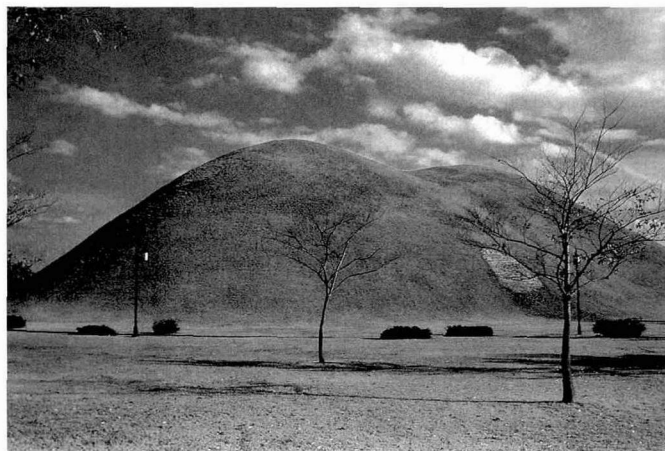
I. 머리말

南墳과 北墳의 夫婦墓로 구성된 皇南大塚은 김씨 집단이 왕위를 고정 계승하던 麻立干 시대 초기 왕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고분이다¹. 男性墓인 남분에서는 최초로 직각 맞가지식 金銅冠이 목걸이·허리띠·환두대도 등 세트화된 장신구와 함께 착장된 상태로 발굴되었다².¹ 이 직각 맞가지식 금동관은 묘주가 착장한 것 이외에 부장품 수납부에서 4점이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이 논문은 2002년 6월 역사학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발표 내용 중 「신라관의 기술적 계보」는 지면관계상 추후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¹ 崔秉鉉, 「發掘調査 經過」,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本文)(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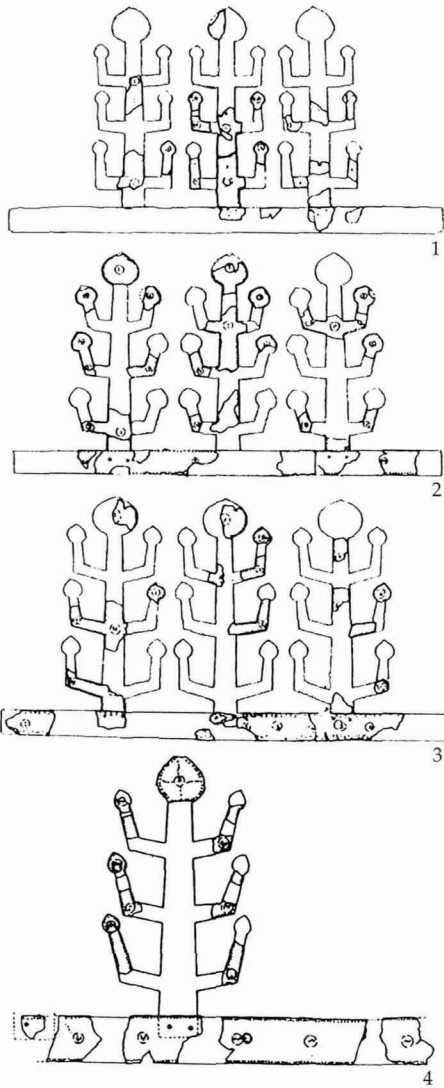
도1 황남대총, 5세기 초



도2 착장 유물의 출토상황, 황남대총 남분, 신라

더 발견되었다. 따라서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같은 형식의 맞가지식 금동관이 모두 5점이 부장된 셈인데, 5점의 관들에서 맞가지 각이 鈍角에서 점차 直角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관찰된다(도1). 같은 형식의 관 5점이 동시에 부장된 사실과 관들의 형식적 변화과정은 관의 용도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즉 이 관들은 묘주가 생시에 시점을 달리 사용하였던 것들로 파악되어, 신라관을 단순히 장송용으로만 이해했던 데에 의문점을 제시한다. 직각 맞가지식 금동관은 남분보다 뒤에 축조된 부인묘인 북분에서 鹿角形 입식이 첨가된 뒤 瑞鳳塚·金冠塚·天馬塚 등의 금관으로 계승되는 신라관의 전형이 된다. 또한 경주 지역뿐 아니라 신라지역으로 편입된 釜山 福泉洞고분이나 慶山 林堂고분 등의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 논문은 고대 국가 형성시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황남대총 단계에서 직각 맞가지식관인 신라관이 출현하여 완성되는 사회적 배경과 그 용도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高句麗·百濟·伽倻에서는 동일한 형식의 금속제 관이 완성되지 못한 것과 달리 신라에서는 같은 형식의 관을 왕족을 비롯한 일정한 귀족계층이 착용한 장신구 문화를 가졌던 신라 사회상에 대한 문제점과 연결된다.



삼도 1 金銅冠 皇南大塚 南墳, 新羅,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1 묘주 착장관, 2·3·4 부장관 출토 관

신라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도상적 기원을 북방아시아에 두고 그 계보와 상징성을 탐구하는 연구로 그 논의가 집중되었다.²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활발한 고고학적 성과에 힘입어 신라관이 경주 이외에 신라 영향권인 釜山 福泉洞이나 大邱 慶山 등에서 출토되는 것을 알게되어, 신라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역사학과 고고학계에서는 지역고분의 신라관을 지방통치와 관련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³

新羅冠이 그동안 논의 되어왔던 것처럼 신라의 세계관과 연관된 조형을 가지는 점

² C. Hentze, "Die Schanenkronen zur Han-Zeit in Korea," *Ostasiatische Zeitschrift*, Neue Folge IX, Heft 5(1933), pp. 156-163(大林太郎譯, 『古代學研究』 73(1974), pp. 13-20에 재수록); 金載元 外, 『壺杆塚과 銀鈴塚』(國立博物館, 1948), pp. 24-28; 金元龍, 『新羅 金冠의 系統』, 『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東國大學校出版部, 1965), p. 291; 秦弘燮, 「百濟·新羅의 冠帽·冠飾에 관한 二·三의 問題」, 『史學志』 第7輯(1973), pp. 1-34; 金秉模, 『신라금관의 비밀』(도서출판 푸른역사, 1998), pp. 33-35.

³ 崔種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山大史學』 7(1983); 金龍星, 「慶山·大邱地域 三國時代古墳의 階層化와 地域集團」, 『嶺南考古學』 6(1989); 同著,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1998); 朴普鉉, 「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 『嶺南考古學』 제4호(嶺南大學校 考古學科, 1987), pp. 13-33; 同著,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李漢祥,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4).

과 새로이 확보된 신라영역에 신라관이 부여되는 점은 이 관의 용도로 접근해 볼 때 결국 서로 연결되는 문제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 사회에서 신라의 세계관, 즉 始祖信仰은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되면서 王權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으며, 신라사회는 특히 종교적 가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연구성과들을 주목하였다.⁴ 그리고 왕은 始祖王의 권위를 표방하며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는 제사를 주재한 점을 중시하였다.⁵

신라에서는 2대 南海王때 박혁거세를 모시는 시조묘가 설치된 이래 왕이 親祀하는 始祖廟제사가 계속 이어진다(뒤의 표 1 참고). 그런데 특히 김씨가 고정적으로 왕권을 계승하는 내물왕대에 시조묘의 新異기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새로이 확립된 김씨 왕권과 결부되어 시조묘제사가 강화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김씨 왕권은 金櫃 또는 金車에서 자신들의 연원을 밝히고 있는 김알지 신화를 가지고 있어, 김씨 마립간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금제품과의 연관성을 상기시킨다. 이들 김씨 왕권의 초기 고분으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에서 맞가지식 나무와 사슴뿔 입식으로 장식된 新羅式 金冠이 최초로 출토되어, 시조묘 제사와 이때 완성된 신라관의 관계를 상정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라관이 생시에 중요한 의례에서 착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왕족이 거행한 제사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조묘제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내물왕대에 始祖廟에 대한 신이 기사로서 신라관의 입식장식과 연관된 連理木과 一角사슴이 등장하는 것은 시조묘와 신라관의 관계를 연결하여 생각하게 한다 표 1. 따라서 연리목과 일각사슴의 의미를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하는 작업은 김씨 마립간시대의 변화된 치세이념과 이때 완성된 신라관 조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어 황남대총 북분 등의 여성묘와 여러 지방고분에서 출토된 신라관에 대한 성격 규명은 신라 왕권과 결부된 시조묘 제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4 崔光植, 「韓國古代的 祭儀研究 -政治, 思想史的 考察을 中心으로-」(高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89); 同著, 「韓國 古代的 祭天儀禮」, 『國史館論叢』 13(1990), pp. 51-65; 辛鍾遠, 「新羅祀典의 成立과 意義」, 『新羅初期 佛敎史研究』(民族社, 1992); 李基東, 「新羅人の 信仰과 宗教-三國史記 新羅本紀 記事를 통해서-」, 『慶州史學』 16(慶州史學會, 1997), pp. 51-72.

5 羅喜羅, 「韓國 古代的 神觀님과 王權」, 『國史館論叢』 69(1996), pp. 117-139; 同著, 「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 祭祀 研究」(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蔡美夏, 「新羅 宗廟 制와 王權의 推移」(慶喜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8).

II. 新羅 麻立干時代와 高塚文化

신라관은 김씨 마립간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신라는 朴·昔·金 세 집단이 중심이 되어 辰韓을 비롯한 주변 小國을 점차 통합해 나가던 3-4세기 무렵에 일정한 영역을 갖춘 고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어 김씨 집단이 신라에서 王位를 고정으로 계승하는 麻立干時代를 열면서 高塚형식의 積石木槨墳들이 慶州를 중심으로 築造되는 새로운 고고학적 양상이 전개되었다.⁶ 신라에서 적석목곽분은 시작과 끝이 대개 金氏 麻立干時代와 겹치기 때문에 지배세력 변동에 의한 社會的 特徵으로 이해된다.⁷

마립간시대에는 내적으로는 6部制를 정비하였고, 地方 小國이나 邑落 集團에 대하여 통제력을 강화하여 支配 領域이 확장되어 신라 고대국가의 기틀이 확립된 시대이다.⁸ 對外的인 면을 보면, 奈勿麻立干(356-402)시대에 고구려를 매개로 하여 前秦의 符堅政權에 377년과 381년에 入朝하는데 辰韓이 아닌 새로운 國號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국제 정세로 보아 신라가 고구려와 동등한 입장에서 전진과 통교한 것은 아니지만, 신라는 이 기회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前秦의 왕 符堅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묻자 국호를 바꾸고 달라진 신라를 답하는 사신 衛頭의 답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⁹ 위두의 답변은 對外交渉權을 단일하게 통합할 수 있는 집권국가로서 일신된 신라의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각 국 간에 전개된 외교활동은 국가 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와 더

⁶ 高塚은 被葬者의 威勢를 강조하기 위하여 墳丘를 圓形으로 거대하게 축조한 고분을 지칭하며 적석목곽분 단계에서 시작된다. 土壙墓도 지상에 어느 정도의 봉토를 쌓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큰 규모는 아니다. 崔秉鉉, 『新羅의 成長과 新羅古墳』, 姜仁求·崔秉鉉·金東賢 共著, 『韓國古代國家 形成時期的 考古學的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p. 72.

고총의 정의에 대해서는 崔種圭, 『原三國時代の墓制』, 『韓日交涉의 考古學』 彌生時代編(東京, 1991), p. 211; 金龍星, 『林堂 I A-1號墳의 成格에 대하여-高塚 始原的 樣相』,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1996), p. 320; 李熙濬, 『新羅 高塚의 特性과 意義』, 『嶺南考古學』 10(嶺南考古學會, 1997), p. 5; 同著,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8, p. 1.

⁷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p. 381; 朱甫墩,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와 村落』(啓明大學校 歷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5), p. 9.

⁸ 6부제 성립과정과 그 시기의 연구사적 고찰은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pp. 15-20;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pp. 1-7, 27-28 참고.

⁹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2 奈勿王 26年條.

불어 교역 루트의 확대를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측면도 주목된다. 4세기 신라가 대외교섭권을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해 진 데에는 대방군이 축출되면서 새롭게 개척된 고구려·신라·왜라는 교역루트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 군현과의 商圈을 유지하던 가야사회의 교역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 새로운 루트의 확립으로 신라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¹⁰ 이러한 계기가 역사적으로 표출된 것은 『三國史記』 奈解尼師今條와 勿稽子傳, 그리고 『三國遺事』 勿稽子條에 나타난 浦上八國의 난이다.¹¹

이와 같이 격변의 4세기 신라사회에서 마립간시대의 주인공인 김씨세력이 박씨세력과 석씨세력을 누르고 대외적으로 성장한 과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먼저 주목되는 것은 당시 신라를 비롯한 고대 국가 국제교역체계에서 중요한 교역제품이었던 鐵이다. 신라의 건국집단의 하나인 脫解가 뛰어난 鐵器 文化를 가진 세력의 長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冶匠神話를 가진 석씨 집단 유입이 신라에서 철기문화의 향상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² 4세기 경주에서 산출된 철기는 기존의 철정 이외에 甲冑나 馬具, 살포나 鐵鋤 등의 농기구 등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철기가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철제농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로국은 농업성장력을 높일 수 있었고, 성장된 농업생산력은 고대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철기생산체제와 더불어 경주중심의 김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경제적 토대로서 金을 들 수 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경주중심의 사로국의 성장배경으로 高句麗, 東濊 등 북방 쪽과 연계된 금무역이 지적되었다.¹³ 金을 다루었던 무역체계는 철과 달리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진변한 해로무역과 비교하여 육로 교역망을 갖춘 경주의 斯盧國이 유리하였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신라가 동예나 고구려와 통하는 동해안 루트를 가장 먼저 구축

10 朱甫暎,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신서원, 1998), pp. 25-35.

11 포상팔국의 시기에 대해서 3세기 전반으로 보는 의견(李賢惠, 『韓國古代의 生産과 交易』(一潮閣, 1998), pp. 311-307(「4세기 伽倻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1988), 原載)과 4세기 초로 보는 의견(김태식, 앞의 책, p. 84)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낙랑군의 소멸에 따른 국제적인 변화로 보는 의견을 따라 4세기 초로 생각하였다.

12 『三國史記』 卷 1, 新羅本紀, 脫解尼師今 卽位年條: 『三國遺事』 卷 第 1, 脫解王條.

13 朱甫暎, 앞의 논문(주10), p. 17; 李熙濬, 앞의 논문(주6),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研究」(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 158.

14 신라의 육로인 秋風嶺路, 竹嶺路, 鷄林嶺路에 대한 연구는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檀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8), pp. 53-190; 李道學, 「古代國家의 成長과 交通路」, 『國史館論叢』 74(國史編纂委員會, 1997), pp. 171-174.

하였던 점이 상기된다.¹⁵ 바로 “北溟人이 밭을 갈다가 濊王의 印을 얻어 王에게 바쳤다”라는 기사에서 강원도 강릉 지역과 경주를 잇는 東海岸路의 개척을 짐작할 수 있다.¹⁶ 육로무역의 대상국 중에 포함되었을 고구려나 東濊에 관한 문헌을 보면, 이들 국가의 활발한 金銀 사용이 주목된다.¹⁷

신라를 국제사회에 입문시켰으며, 신라 금공품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고구려의 경우 장례에 金銀을 사용하는 기사로 보아 3세기 대부터 金銀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¹⁸ 또한 10월 祭天 國中大會의 公服으로 모두 金銀으로 장식한 錦과 繡로 된 비단옷을 입었다는 기사도 참고된다.¹⁹ 실제 平南 大同郡 湖南里 金絲塚에서 의복에 장식된 金絲, 金球 등이 출토되었고, 黃海 北道 遂安郡 山北里에서 의복에 부착되었던 金단추가 출토되었다.²⁰

4세기 이후 금은 한반도내의 국가들에서도 그 소비량이 증가하였지만, 중국에서도 魏晉 南北朝시대에 금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한다. 이는 佛敎가 확산되면서 金銅佛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금제 장신구들을 패용하는 풍습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도 5세기 들어서 금은세공품의 부장이 두드러진다.²¹ 신라가 金銀을 주했다는 神託을 근거로 신라를 정벌하였다고 기록한 『日本書紀』 기사는 신라가 금이 많이 산출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²² 이와 같이 4세기 이후 급증하는 금의 국제적 수급체제를 고려하면 신라의 금이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금의 생산과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세력을 자신들이 金櫃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김씨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김씨 집단은 북방중국·고구려·신라·왜를 잇는 국제적 교역체계에서 중요한 교역품으로 유

15 신라는 동해안 지방을 가장 먼저 영토확장의 대상으로 삼았다. 李基東, 「新羅의 풍토와 그 역사적 특징」, 『新羅 社會史研究』(一潮閣, 1997), p. 4.

16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南解次次雄 16年條.

17 東濊의 금사용은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東濊條 “男女衣皆著曲領, 男子擊銀花廣數寸以爲飾.”

18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高句麗條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19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高句麗條, 以十月祭天 國 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20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朝鮮古文化綜鑑』第4卷(1966), pp. 22-2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조선유적유물 도감』 고구려편(2)(民族文化, 1993), p. 483.

21 泉森 皎(이즈모리 코우)·伊藤勇輔(이토우 유우스케), 『大和の考古學』(東京: 大興出版, 1985), p. 16.

22 金泰植, 「日本書紀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第14輯(1998年11月); 『日本書紀』神功前紀 仲哀 9年.

통되었던 금을 기반으로 석씨집단과 박씨집단을 견제하고 월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³ 이들은 대형 봉토분인 적석목곽분을 축조하고 금제품들을 부장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

현재까지 경주에서 발견된 적석목곽분 가운데에서 월성로 가-13호분, 황남동 109호 3·4곽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음 대형묘 적석목곽분으로는 皇南大塚을 들 수 있다. 황남대총은 남분과 북분의 쌍분으로 이루어진 고분으로 남북길이 120m, 높이 23m의 크기에 16000톤 봉토로 이루어진 대형고분이다. 황남대총은 현재 적석목곽분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적석목곽분은 점차 그 구성요소가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天馬塚 단계에서는 황남대총에 비해 봉토 높이도 그 반 정도로 줄고 목곽도 홑곽이다.²⁴ 이는 점차 왕권이 안정화됨에 따라 대형고분으로 그 威勢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황남대총의 초대형화된 봉토 크기는 신라 고대 국가 형성단계에서 초기 김씨 왕권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다.

III. 皇南大塚 직각 맞가지식 新羅冠의 출현과 始祖廟 祭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착장유물을 살펴보면, 장신구들의 각각의 패용의 풍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으나 垂下式이 달린 관과 頸·胸飾, 귀걸이, 허리띠의 세트화된 착장유물로 완성되는 것은 황남대총 단계의 신라에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세트화된 착장유물은 이후 신라의 왕릉급 무덤으로 이어진다. 또한 신라 영역에 포함된 지방고분 착장유물의 기본형이 되면서도 일정한 재질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을 통해 황남대총 단계에서 확립된 신라 사회계층 질서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남대총 단계의 관들은 단순히 장송용인 아닌 실생활에 사용된

²³ 중국은 금이 출토되는 남방지역에 비해 북방지역은 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금 수급상황에 대한 것은 拙稿, 「中國 古代 鍍金細工의 淵源과 展開」, 『미술사연구』 15(2001), pp. 7-8.

²⁴ 崔秉鉉, 「新羅 積石木槨墳의 起源 再論」, 『崇實史學』 第12輯(崇實大學敎 史學會, 1998, 8), p. 81; 同著, 「皇南大塚의 構造와 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起源」, 『皇南大塚의 諸照明』 第1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2000, 11), p. 111.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남대총이 왕릉급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관들은 왕이 집전하는 특수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왕이 집전하였을 의례로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始祖廟祭祀이다. 시조묘 제사는 기본적으로 신라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의례로서 神宮祭祀·五廟祭祀로 이어진 초기의 조상 숭배 의례이다. 『三國史記』祭祀志의 신라 제사 체계는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아 晋代 이후에 확립된 대사·중사·소사체제로 편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편제는 大祀·次祀·小祀로, 天官 酒正篇에는 大·中·小祭로 구분한 『周禮』春官 肆師篇에서 그 시초를 찾아 볼 수 있다.²⁵

신라 왕실에서는 황제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중국 제사 체계를 안 후에, 중국 제사체계를 과거 전통적인 제사에 적용하여 왕실 권위를 세우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없는 조상 숭배 의례인 始祖廟와 神宮 제사는 五廟가 설치된 이후에도 계속 행해져서 신라 국가 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²⁶ 또한 시조묘 제사는 단순한 조상 숭배 의례가 아닌 신라사회에서 특별한 기능을 한 특수 의례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의 祭祀志에 의하면 신라 南解王3년(AD 6년) 봄에 始祖赫居世廟를 세우고 1년에 네 번 즉 계절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왕의 누이동생인 阿老가 이를 주재하였다고 기록되었다.²⁷ 『三國史記』에서 시조묘에 대한 나오는 기록을 다음 表 1)로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모두 왕이 즉위한 다음해 2월에 지낸 제사만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년에 4번을 지낸 상시적인 제사 기록은 누락되고 왕이 즉위한 다음 해에 지내는 제사만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은 시조묘 제사가 결국 즉위의례를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²⁸ 이와 같이 신라에서 시조묘 제사가 즉위의례 성격을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天神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천의례의 핵심적인 요소는 전통적인 天神 信仰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蘇塗로 거슬러 올라간다. 『三國志』를 비롯한 중국의 문헌에서는 국가의 중심 음악이 아닌 음악을 소도라 부르고 그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鈴鼓를 걸어 귀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전한다.

²⁵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譯註 經國大典』(1986), p. 412.

²⁶ 辛鍾遠, 「新羅祀典의 成立과 意義」, 『新羅 初期 佛教史研究』(民族史, 1992), pp. 95-97(「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號(1992) 원재)

²⁷ 『三國史記』 卷 第32, 雜志 제1 祭祀,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²⁸ 시조묘의례의 즉위의례적 성격에 대해서는 羅喜羅, 「古代 神觀念과 王權-新羅王室의 祖上祭祀를 중심으로」, pp. 116-144 참고.

신라에서 天神 개념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상징되는 박혁거세로 상징되는 始祖王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의 國祖이자 天神으로 인식된 박혁거세를 모신 시조묘에서 즉위의례가 거행되었던 종교적 배경에는 시조왕으로 비롯된 권력의 정당성이 파생되기 때문이다.²⁹ 결국 시조묘 제사는 지배자를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결시키고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한 특수 의례로 규정할 수 있다.³⁰

國祖가 天神 개념으로 숭배되었던 것은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 경우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보이는 東明祭에서 天神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농업신적 성격을 가진 隧神을 큰 동굴에서 맞이하여 수도 동쪽 압록강 위에 모셔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³¹ 故國壤王 때에는 宗廟를 수리하고 國社를 세우는 일을 하였는데,³² 5세기 자료인 『廣開土王陵碑』, 『牟頭婁墓誌』에서는 東明과 연계된 朱蒙이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정리된 왕계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단계를 반영한다.³³ 더 나아가 점차 귀족들의 族祖 전승에도 朱蒙이 등장하여,³⁴ 고구려 왕족에서 혈족간 변화가 있어도 國祖로서 주몽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 시조묘 제사에서 박혁거세가 國祖이자 天神으로 모셔진 것과 더불어 이를 주관하는 김씨 왕권의 신성성도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조묘 의례의 변화가 마립간 시대 말기에 神宮이라는 새로운 조상의례를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³⁵ 국가의례의 성격을 가진 시조묘 제사에는 이를 주재하는 왕을 비롯하여 副王格인 葛文王과 각 집단의 장들이 참가하였을 것이다.³⁶ 이러한 시조묘제사에 바로 황남대총 단계에서 완성된 신라관이 착용되었을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출토된 신라관의 수가 마립간시대의 6명 왕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²⁹ 羅喜羅, 앞의 論文(주28), p. 70.

³⁰ 崔光植, 『古代韓國의 國家와 祭祀』(한길사, 1994), pp. 337-338.

³¹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³² 趙仁成,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變化」, 『韓國古代史研究』 4(1991) 참고.

³³ 조범중,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수묘제연구-수묘인의 편제와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1995), p. 199; 徐永大,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研究』 8(1995), pp. 181-183.

³⁴ 『高慈 墓誌銘』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已後, 代爲公侯宰相”; 『泉男產 墓誌銘』 “君諱男產, 遼東朝鮮人也. 昔者東明感氣, 踰泝川而開國, 朱蒙孕日, 臨浪水而開都, 威漸扶索之津, 力制蟠桃之俗, 雖星辰海嶽, 莫繫於芟荒, 而俎豆詩書, 有通於聲教, 承家命氏, 君其後也.”

³⁵ 새로운 신궁의 설치를 새로운 왕계의 확립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蔡美夏, 「新羅 宗廟制와 王權의 推移」(慶喜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1), p. 57.

³⁶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3), pp. 22-23(「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1973) 原載).

표 1 삼국사기의 시조묘 기사

王名	記事內容
2대 南解次次雄	三年, 春正月, 立始祖廟. 雜志 第1 祭祀,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 之 以親妹阿老主祭.
3대 儒理尼師今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大赦.
4대 脫解尼師今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5대 婆娑尼師今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6대 祇摩尼師今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7대 逸聖尼師今	二年, 春正月, 親祀始祖廟.
8대 阿達羅尼師今	二年, 春正月, 親祀祖廟, 大赦. 十七年, 春二月, 重修始祖廟. 十九年, 二月, 有事始祖廟.
9대 伐休尼師今	二年, 春正月, 親祀始祖廟, 大赦.
10대 奈解尼師今	二年, 春正月, 謁始祖廟.
11대 助賁尼師今	元年, 秋七月, 謁始祖廟.
12대 沾海尼師今	元年, 秋七月, 謁始祖廟.
13대 味鄒尼師今	二年, 二月, 親祀國祖廟, 大赦.
14대 儒禮尼師今	二年, 春正月, 謁始祖廟.
15대 基臨尼師今	二年, 二月, 祀始祖廟.
16대 訖解尼師今	二年, 二月, 親祀始祖廟.
17대 奈勿麻立干	三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紫雲盤旋廟上, 神雀集於廟庭. 七年, 夏四月, 始祖廟庭樹, 連理.
18대 實聖麻立干	三年, 春二月, 親謁始祖廟.
19대 訖祗麻立干	二年, 春正月, 親謁始祖廟.
20대 慈悲麻立干	二年, 春二月, 謁始祖廟.
21대 炤知麻立干	二年, 春二月, 祀始祖廟. 七年, 四月, 親祀始祖廟 曾治守廟二十家. 九年, 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十七年, 正月, 王親祀神宮.

시조묘의 제사에 착용된 나무와 사슴뿔의 조형을 가진 신라관은 결국 天神개념과 天神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라왕의 치세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며 이제 당시 신라왕의 치세이념과 신라관의 조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김씨 왕권을 확고히 정립한 내물왕대에 관의 입식장식에 사용된 나무와 사슴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점이다 표1.

IV. 新羅冠의 나무 · 사슴뿔 · 寶珠의 상징성과 治世理念

신라관의 구성요소 중 중요한 것은 입식을 구성하는 나무 · 사슴뿔 · 보주이다. 이들 중 먼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황남대총 남분 금동관의 맞가지형 입식은 모두 3개이며, 각각은 모두 3단의 7개 가지로 구성된 특징이 고찰된다. 천마총, 금관총 금관에서는 4단의 9개 가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7가지가 보편적이다³⁷. 나무가 관의 중요요소로 자리잡은 데에는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먼저 고대사회에서 수목신앙의 보편적 의미를 살펴보고, 신라관에 표현된 7가지 맞가지식 나무에 대한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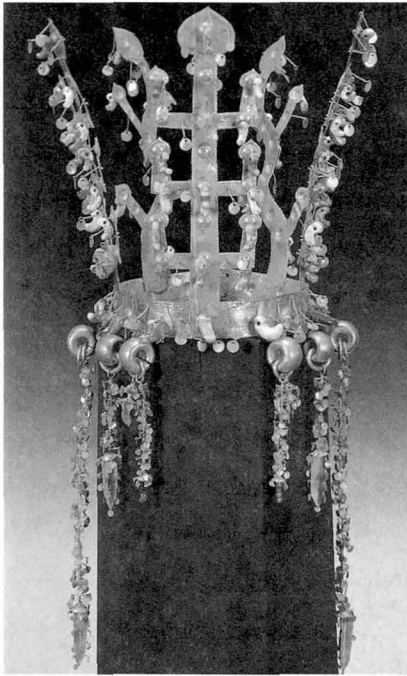
수목신앙에 대한 초기 모습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蘇塗를 들 수 있다. 소도는 큰 나무를 세우고 영고를 걸어 귀신을 섬겼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 나무가 신령이 내려오는 장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이 내려온 곳은 太白山 정상 神壇樹이며 웅녀가 孕胎하기를 기원한 곳은 바로 壇樹였다.³⁷ 또한 동북아시아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벌거벗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무 가지에 앉아있다 세상에 태어난다는 신화적 관념이 널리 유포하여 있었다.

원삼국시대의 수목신앙은 삼국시대로 이어지는데, 고구려 경우에서는 먼저 단군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그려진 角抵塚을 통해 수목신앙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 벽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나무 아래에서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4.38}. 씨름은 고대 동북아시아 장례행사의 하나로 죽은 사람이 天界에 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³⁹ 이러한 장면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 5세기 고구려인들의 단군신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長川 1號墳에는 큰 나무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서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중 나무를 보고 있는 중앙의 여인을 단군을 잉태하기를 바라는 熊女로 해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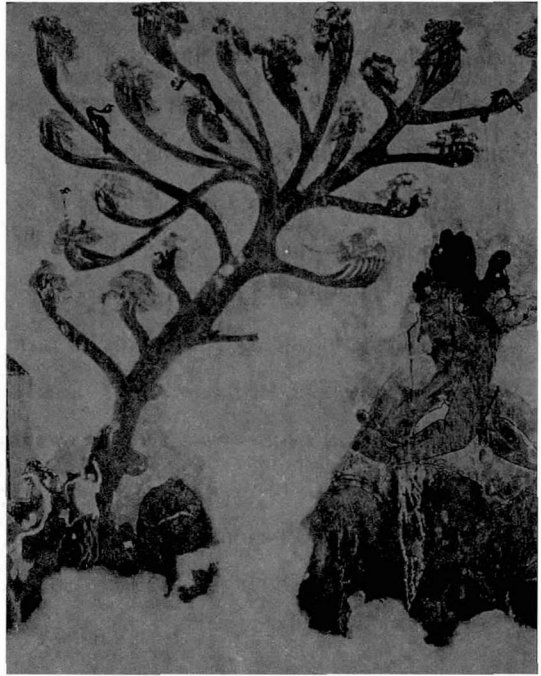
³⁷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一潮閣, 1977), pp. 17-28.

³⁸ 이 그림을 통해 5세기 고구려인들의 단군신화의 인식을 밝혀낸 연구는 강릉남,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역사과학』 1996년 3기(1996) 참고. 齊藤 忠(사이토우 다타시), 「角抵塚의 角抵(相撲) · 木 · 熊 · 虎との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日本考古學研究 2(東京: 學生社, 1989), p. 284.

³⁹ 齊藤 忠, 앞의 논문, p. 282; 전호태, 「高句麗 각저총 벽화연구」, 『美術資料』 57(1996), p. 17; 林玲愛,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 중국의 西王母신앙-씨름그림에 나타난 西域人」을 중심으로, 『高句麗 · 渤海研究』 I(1998. 9), p. 158.



도3 金冠, 황남대총 북분, 신라, 5세기 전반



도4 곰과 호랑이, 각저총, 고구려, 5세기

도 한다도 5. 이 長川 1號墳의 나무그림은 나무가 생명을 내려주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의미의 수목신앙이 확인된다. 武寧王(462-523, 재위 501-523)부부가 합장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 족좌가 주목된다. 피장자의 다리를 올려놓는 足座 윗부분에는 나뭇잎 모양의 金飾이 달린 鐵芯이 장식되었다도 6.⁴⁰ 철심의 아래에는 蓮花文이 표현되었다. 결국 연화와 나무가 결합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피장자 승천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머리를 괴는 頭枕에 그려진 불교적인 재생의 주제인 六道輪廻를 거치지 않고 佛淨土에서 홀연히 태어나는 방법인 연화 화생과 연결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⁴¹

⁴⁰ 國立公州博物館, 『百濟 斯麻王』(2001), p. 100.

⁴¹ 全虎兌,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하늘연꽃」, 『美術資料』 46號(1990 12), p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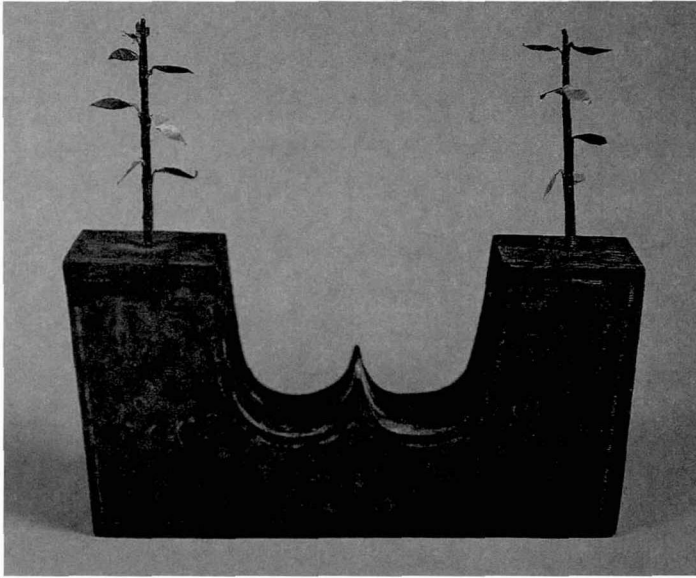


도 5 수목예배도, 장천1호분, 고구려, 5세기

이상과 같이 고대인들은 나무를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5세기의 고구려의 고분 벽화나 6세기의 백제 무령왕릉의 고분 부장품에 이르기까지 하늘로 오르는 길이자 생명이 하강하는 장소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7가지로 나타난 직각 맞가지형 입식과 연관된 나무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데서, 신라 맞가지식 금관이 내포하는 의미가 연결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단군신화에 보이는 나무신앙에는 북방 시베리아의 것과 일정하게 맥이 닿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7가지의 나무나 9가지의 나무는 시베리아 샤만 天界上昇 의례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⁴²

메소포타미아인들도 하늘을 일곱 행성이 박힌 하늘과 동일시하여 7층의 하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주산을 상징하는 지구라트는 7계단으로 형성되었는데, 사제는 일곱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로 七天을 건너 우주의 정상에 도달하는 天乘儀禮를 치루었

⁴²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머니즘-고대적 적신술』(까치, 1992), p. 253.



도 6 죽좌, 무녕왕릉,
백제, 6세기 초

다.⁴³ 이와 같이 고대 서아시아나 북방아시아에서는 하늘을 7천이나 9천의 단계로 이어진 개념으로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키르키즈박물관에 소장된 장송용 가면은 북방아시아의 원형적인 우주목의 개념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다. 이 유물은 5세기로 편년되는데, 문신처럼 새겨진 3그루의 나무는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⁴⁷. 역시 신라관이 7가지나 9가지인 점은 불교이전 고대인들의 원형적인 하늘 개념과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이는 백제 칠지도가 7가지로 구성된 것과도 비교된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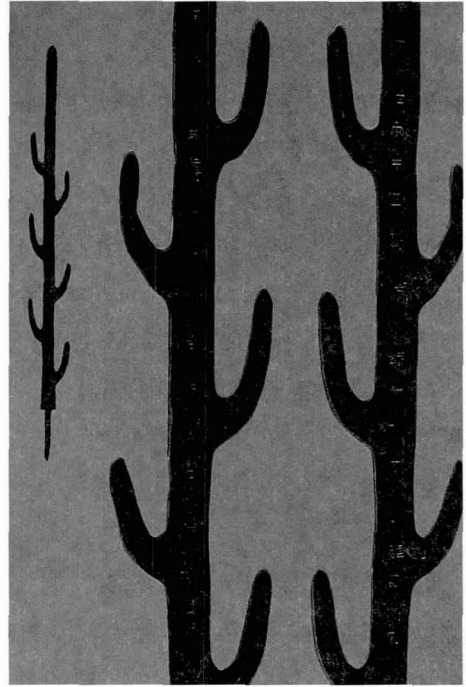
이와 같이 7가지로 된 나무는 고대인들의 원형적인 천상관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물왕의 7년 4월에 始祖廟庭 나무들이 서로 가지가 맞붙은 기록에서 새로운 나무 개념을 살필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⁴⁵ 가지가 서로 맞붙은 나무를 連理木이라 하는데, 이는

⁴³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주술적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까치, 1997), p. 44.

⁴⁴ 칠지도는 백제가 왜와의 우호관계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무기가 아니라 儀器的 성격으로 이해된다. 연대에 대해서는 그간 100여년 동안 韓日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칼에 새겨진 泰和四年을 東晉의 太和四年으로 본다면 369년이 된다. 또한 이 칠지도를 『日本書紀』 신공 52년(372)에 백제가 왜에 七枝刀와 七子鏡을 바쳤다는 내용과 연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칠지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李進熙, 「七支刀研究の百年」, 『廣開土王碑と七支刀』(東京: 學生社, 1980), pp. 37-66; 李基東, 「百濟의 興亡과 倭王國과의 관계-近肖古王代에 있어서 百濟의 倭國과의 交渉」, 『古代韓日文化交渉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pp. 249-284.



도7 葬送用 가면, 5세기, 높이 20.4cm, 넓이 15.3cm,
러시아 키르기즈홀도, 키르기즈 역사박물관 소장



도8 七支刀, 百濟, 길이 74.9cm,
日本 天理市 石上神宮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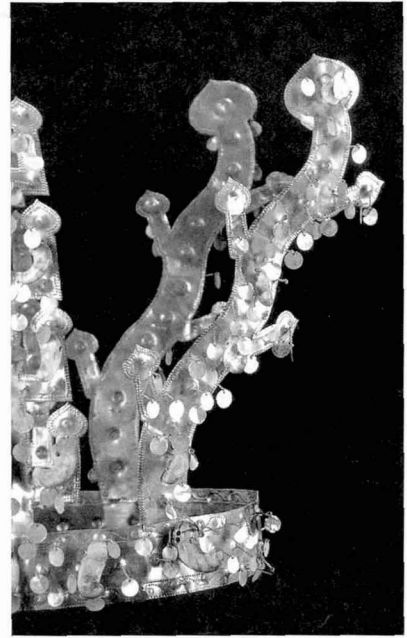
중국의 고대 수목 신앙에서 연원한 것이다.⁴⁶ 산동의 무씨사당에는 연리목의 그림과 함께 “木連理, 王者德洽, 八萬爲一家, 則連理生”라는 명문이 발견된다고⁹. 이로서 연리목이 왕자의 덕으로 분열된 여러 세력을 하나로 모으게 할 수 있다는 정치력을 상징한 것을 알 수 있다. 내물왕 7년 시조묘의 神異 記事로 나온 연리목에 대한 기사도 중국 연리목에 대한 개념과 바로 연관된다. 주지하다시피 내물왕은 김씨 왕권을 확립하고 지방 소국에까지 그 세력을 넓혔던 임금으로 알려졌다. 내물왕이 중국 연리목의 상징을 시조묘의 神異에 도입한 것은 이러한 神異記事를 통해 왕권 강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보면 신라관의 맞

⁴⁵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勿王 7年 이외에 고구려의 양원왕 2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定置』(혜안, 1999), p. 49.

⁴⁶ Machael Sullivan, “The Identification and Meaning of Certain Trees and Plants Represented in the Art of the Han Dynasy,” *The Birth of Landscape Painting in China*(Berk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pp. 169-183.



도9 連理木, 漢, 2세기, 天井, 武氏祠堂



도10 녹각형 입식, 금관의 일부, 천마총, 5세기 후반

가지식 입식은 기본적으로 7하늘로 구성된 우주목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신라 마립간 시기의 권력강화정책과 연관된 군주의 정치력과도 연결된 의미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사슴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사슴뿔입식이 첨가된 다음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등의 금관에서 계속 이어진다고도 10. 사슴이라는 요소는 신라의 어떠한 시조신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奈勿王 17 年에 夫沙郡에서 一角사슴을 바친 기사와 연이어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는 기사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⁴⁷

삼국시대 이전의 사슴을 주제로 한 미술품은 永川 魚隱洞에서 출토된 사슴머리와 현재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東洋美術室에 소장된 動物文 肩胛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永川 魚隱洞에서 출토된 사슴은 머리 부분만을 표현하였고, 얼굴 부분은 거치문으로 장식하여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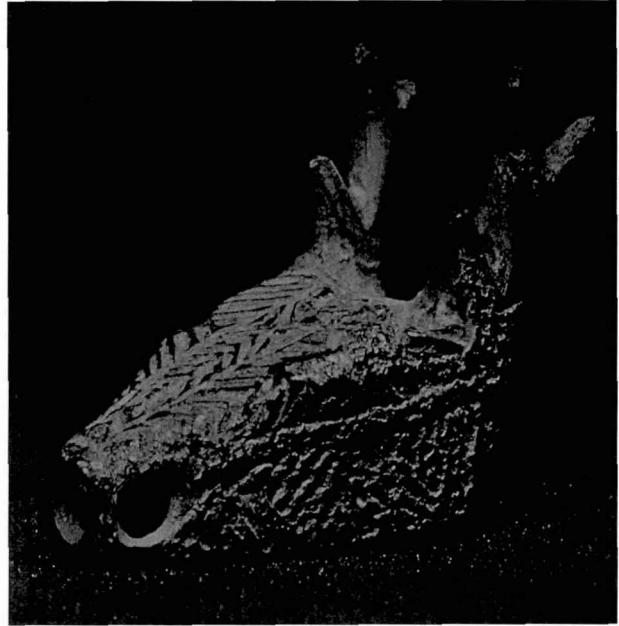
47 『三國史記』新羅本紀 奈勿王 17年.

를 표현하지 않은 반면, 뿔만은 사실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특징이 있다⁴¹. 사슴 입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줄을 매어 장식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영천 어은동 출토 사슴머리는 의례와 관계된 장식물로 등장된 것이 유념된다. 고대사회에서 의례에 사슴이 등장하는 것은 사슴이 신성한 의미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슴의 상징성이 설명된 것은 삼국시대의 사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이다. 다음의 표 2는 『三國史記』의 고구려·백제·신라에 나오는 사슴에 관한 기록이다.

표 2 『三國史記』의 사슴에 관한 기사

		왕	특징	기사 내용
1	고구려	瑠璃明王 21年	천도지 입지조건으로 사슴을 들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文, 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拘於國內人家, 養之, 返見王, 曰: “臣逐豕, 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2	”	太祖大王 10年	백록수렵	十年 秋八月, 東獵, 得白鹿. 國南, 飛蝗害穀.
3	”	太祖大王 25年	세 개의 뿔이 달린 사슴	十五年, 冬十月, 扶餘使來, 獻三角鹿·長尾免, 王以爲瑞物, 大赦.
4	”	太祖大王 46年	백록수렵	四十六年,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鬪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群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功於岩, 乃還.
5	”	西川王 7年	백록수렵	夏四月, 王如新城 國之東北大鎮也, 獵獲白鹿.
6	”	西川王 19年	백록수렵	秋八月, 王東狩, 獲白鹿.
7	백제	溫祚王 5年	신록수렵	冬十月, 巡撫北邊, 獵獲神鹿.
8	”	溫祚王 10年	신록수렵	秋九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9	”	多婁王 4年	사슴수렵	九月, 王田於橫岳下, 連中雙鹿, 衆人歎美之.
10	”	己婁王 27年	신록수렵	十七年, 王獵漢山, 獲神鹿.
11	”	肖古王 48年	백록진상	秋七月, 西部人苺會白鹿, 獻之. 王以爲瑞, 賜穀一百石.
12	”	古尔王 3年	사슴수렵	三年, 冬十月,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13	”	比流王 22年	사슴수렵	十一月, 王獵於狗原北, 手射鹿.
14	”	辰斯王 7年	사슴수렵	七年, 秋七月, 獵國西大島, 王親射鹿.
15	”	東城王 5年	신록수렵	夏四月, 獵於熊津北, 獲神鹿.
16	”	東城王 14年	사슴수렵	冬十月, 王獵牛鳴谷, 親射鹿.
17	신라	奈勿王 21年	일각사슴	秋七月, 夫沙郡 進一角鹿. 大有年.
18	”	太宗武烈王 2年	白鹿진상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19	”	昭聖王 1年	白鹿진상	春三月, 冷井縣令廉哲進白鹿.

⁴⁸ 어은동 유적은 기원후 1세기 무렵 유적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국가의 형성』(1999), p. 31.



도 11 사슴머리, 1세기, 높이 3.3.cm,
永川 魚隱洞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고구려나 백제왕은 변경지방에 대한 순수시에 전렵을 하여 국가훈련이나 군사통수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白鹿 수렵이 기록된 것은 특별한 祥瑞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⁴⁹ 결국 이는 고구려나 백제에서 상서동물 특히 白鹿 획득은 귀중한 통치구범인 것을 알 수 있다.⁵⁰ 이는 수렵에서 잡은 사슴이 제천행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부여사신이 3개의 뿔이 달린 사슴을 바치자 상서로 여기고 죄인을 풀어줬다는 기록에서는 사슴이 제천의례의 희생동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⁵¹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는 매년 3월 3일 낙랑지구에서 수렵에서 잡은 돼지나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낸 것이 기록이 있다.⁵² 특히 白鹿은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宇宙鹿(Cosmic Deer)로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되었다.

⁴⁹ 金瑛河, 「三國時代 王의 統治形態 研究」(高麗大學校 歷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88), p. 139.

⁵⁰ 金瑛河, 앞의 논문, pp. 29-30.

⁵¹ 金瑛河, 앞의 논문, p. 40; 徐永大, 「『三國史記』와 元始宗教」, 『歷史學報』 105(1985), p. 126; 同著, 「韓國 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義」, p. 47.

⁵² 『三國史記』 卷32 雜誌1 祭祀 古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왕의 통치규범으로 사슴을 수렵하는 행위가 발견되는데 반해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내물왕 이전에는 사슴에 관한 기사가 없으며, 상대의 기록으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내물왕대에 一角사슴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시 된다. 이에 참고되는 것은 김씨 왕권의 神聖族 관념에 대한 연구이다.⁵³

이와 관련하여 김씨 시조설화중의 하나인 김알지 신화는 마립간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김씨집단의 거주지는 沙啄 지역이었는데 啄部に 거주하던 석씨 집단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후 왕이 喙部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마립간기이고 김알지 출생설화에서 알지의 출생이 喙部の 鷄林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알지 설화는 마립간 이후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였다.⁵⁴

김씨집단 신성관념의 강화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바로 내물왕대의 一角사슴의 기사이다.⁵⁵ 이는 마립간시대에 신라금관에 점차 사슴뿔 입식이 착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김씨 왕권이 정립하려는 天孫觀과 宇宙鹿으로서 사슴의 상징성이 서로 부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내물왕대에 기록된 一角사슴은 우주록의 의미도 있지만 『宋書』의 기록과 같이 천하가 태평하면 나타나는 祥瑞로서의 의미가 내포된 점이 주목된다.⁵⁶

이로 보면 내물왕 대의 기사에 등장한 일각사슴은 상서로움이나 풍요로서의 角의 개념이 강화된 상징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속제 각형구들이다¹². 천마총의 각형구에는 수수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국 一角이라는 상징에는 풍요와 관련된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은 내물왕대 김씨 왕실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나뭇가지의 입식에 황남대총 북분단계에서 사슴뿔모양의 입식이 첨가되는 것은 마립간시대의 천신족으로 김씨집단을 강화하려는 神聖 개념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사슴은 기본적으로 宇宙鹿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豐饒와 祥瑞의 사슴개념이 더하여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 형태와 관련한 상징과 관련하여, 맞가지식 立飾과 사슴뿔 입식의 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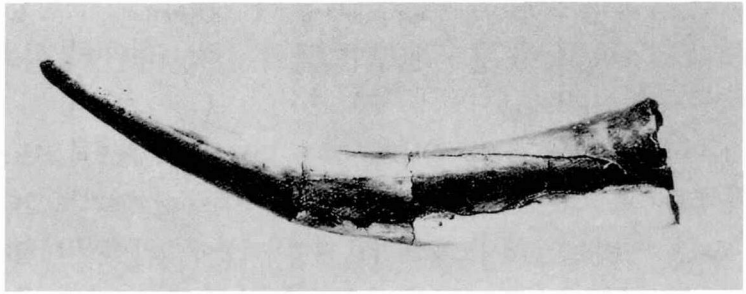
⁵³ 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一潮閣, 1999), pp. 256-291.

⁵⁴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pp. 69-70.

⁵⁵ 김씨왕족의 신성족개념에 대해서는 金杜珍, 앞의 책, pp. 282-287. 여성묘인 북분의 관에 사슴뿔이 장식된 것을 남편보다 계급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李鍾宣, 『古新羅王陵研究』(學研研究社, 2000), pp. 141-244 참고.

⁵⁶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p. 226.

도 12 金銅製角形具,
황남대총 남분, 신라



도 13 보주, 관의 세부,
황남대총 북분



모두 寶珠로 마무리되는 것이 주목된다⁵⁷. 보주의 개념은 나무와 사슴뿔이 내포한 宇宙樹와 宇宙鹿의 개념과 결부된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수와 우주록은 고대 사회에서 천상으로 상승하는 宇宙軸 개념이 있다. 맞가지식의 나무입식과 사슴뿔의 입식이 광명과 연관된 보주형으로 마감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우주의 축을 통해 상승할 수 있는 하늘은 광명적 천신이 주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태양의 광명과 연결된 天신앙을 가졌던 태도는 弗矩內라고 불리운 신라 시조인 혁거세 신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檀君, 朱夢, 東明, 解慕漱神話 등의 東夷族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⁷

⁵⁷ 張碧波, 「高句麗文化淵源考」, 『北方文物』(1998年 1期), p. 63.

V. 女性墓 · 地域古墳 出土 신라관의 사회적 의미

이제 여성묘로 알려진 황남대총 북분, 瑞鳳塚도 14, 황오리북분, 銀鈴塚에서도 금관이나 금동관이 출토되는 문제를 시조묘 의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⁵⁸ 여성왕족의 역할 중 하나는 『三國史記』 제사조에 의하면 나매차차웅이 그의 妹인 阿老에게 시조묘를 주재하게 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왕에 의해 나누어 받은 시조묘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왕의 통치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의 종교적 기능 일부가 친족, 특히 왕실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이는 결국 국가제사를 책임지는 최고 사제직을 왕실 내에서 독점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이 시조묘제사를 나누어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祭儀의 주재자가 될 수 있는 神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농업과 관계된 水神적 속성에 기인한다. 먼저 고대사회에서 여성이 사제적 존재로 등장한 예를 찾아보면, 고구려 산상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祭儀에 쓸 희생인 郊豕를 잡은 酒桶村女가 있다.⁶⁰ 또한 비단바지를 벗어 山靈에게 제사를 지냈던 허황옥에게서도 祭儀의 주재자로서의 여성 모습이 파악된다.⁶¹ 일본의 경우이지만 오끼나와의 왕이 친 제하는 2월의 麥穗祭의 유래에서 穀種이 흰 단지에 담겨져 표류해왔는데, 이 호를 건져 올린 여자의 자손이 巫女로서 국가적 제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사회에서 여성이 신통력이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것은 고구려나 일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신라에서 여성이 제의의 주재자로 부각되는 것은 여성왕족들이 거행하는 시조묘에는 농경제적 요소가 있고, 알영 등의 여성신들이 농업신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조묘 주재자가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혁거세나 탈해, 그리고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에게도 농업신적인 요소가 나타나지만,⁶² 특히 여성신에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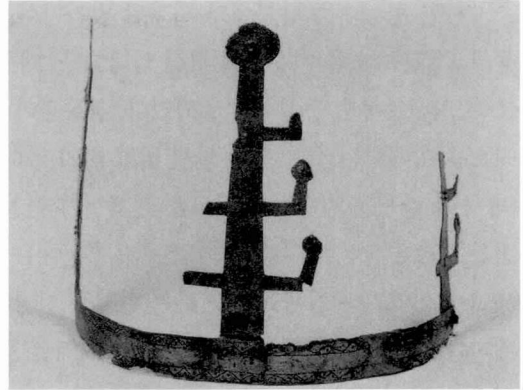
58 쌍분의 경우 북분에 여성이 매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이곳에서 열거한 고분들은 모두 북분에 속한다. 서봉총의 경우 아직 남분이 발굴되지 않았다. 은령총의 경우는 보고서에서 호우총과 연결하여 표형분의 북분으로 보고 있다(金載元, 「慶州老西里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1(1946) 단독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여성고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崔秉鉉, 『신라고분연구』(一志社, 1992), pp. 186-187.

59 羅喜羅,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 『韓國史論』 23(1990), pp. 81-90.

60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4 山上王

61 『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62 특히 탈해와 관련된 풍우신은 다산의 신으로서 탈해를 穀童이면서 龍童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三品彰英, 「脫解傳說-東海神龍의 信仰」, 『增補日鮮神話傳說の研究』(東京: 平凡社, 1972), pp. 263-303.



도 15 金銅冠, 釜山 福泉洞 1號墳, 신라, 4-5세기

도 14 金冠, 瑞鳳塚, 신라, 5세기

농업과 관계된 水神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계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경사회에서 행해진 계절제의 일종인 豫祝祭가 일년에 四祭를 지내는 시조묘의 한 의례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주목된다.⁶³

시조묘 제사 중에 정월과 2월의 제사는 4제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이 수확한 벼를 祖上神이나 國神께 바치는 중요한 제사이다. 아마도 신라의 여성왕족들은 곡물을 수확한 것을 바치는 제사권을 왕에게 나누어 받아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생각된다. 신왕의 즉위의례로 생각되는 즉위 1년 후 정월이나 이월에 거행되는 제사에는 親祀라고 특별히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계절제의 성격을 가진 상시 제사는 여성왕족에 의해 주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볼 때 황남대총 북분등 여성묘에서 출토된 금관들은 여성왕족들이 신라관을 착용하고 시조묘 제사를 집전하였던 전통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⁶³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 - 王者と宗教』(東京: 寧樂社, 1978), pp. 51-52.

한편 황남대총 남분에서 시작된 맞가지식 금동관은 거의 동시대로 생각되는 부산북천동의 1호분도 15을 비롯하여 경산 임당고분, 대구 비산동37-1고분, 창녕 교동 7호분, 양산 금조총, 양산부부총 등에서 출토되었다. 금동관이 출토된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다.⁶⁴ 또한 창녕의 예와 같이 세력이 비등한 세력 중에 한쪽을 지원하여 서로를 견제시켜 간접지배를 피하기도 하고, 4-5세기에는 부산북천동 고분군세력을 지원하다가 5세기 후반에는 양산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이 확인되었다. 6세기에 신라가 지방관을 파견하여 완전한 지방지배를 하기까지 여러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중심지를 축으로 다른 지역을 간접 지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고분에서의 신라관 출토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라관이 제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신라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東海 楸岩洞 銅冠 被葬者 머리에 착용된 채 출토되었는데,⁶⁵ 입식의 정상부가 보주형이 아닌 둥근 半圓으로 변모되어 있다. 이 고분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묘주는 20대 여성으로 추정되어, 宗教職能者일 가능성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다도 16.⁶⁶ 특히 종교직능자가 이 관을 착용 한 채 발견된 것은 신라관이 종교와 관계된 제사에 쓰였던 전통과 연결된 것을 나타낸다.

고대사회에서 최고의 신을 모실 권리는 가장 우세한 집단만이 모실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최고의 신인 天神에 대한 제사에 대한 참여는 복속과 결합의 의미가 있었다.⁶⁷ 또한 우세집단은 천신에 대한 제사권을 독점하고 자신들이 그 천신의 후손인 것을 내세워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합리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영역에 편입된 지역의 수장층들은 경주의 제의문화를 점차 수용하였을 것이다. 경주세력과 연관된 제의로는 巡行을 꼽을 수 있다.

순행은 고대 왕의 통치형태로서 지역을 시찰하는 행위이다. 순행 중에는 그 지방의 수호신에게 국왕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逸聖王이 북방지역을 순수하다 봉화

⁶⁴ 주 3) 참고.

⁶⁵ 이 시기의 관들을 퇴화형 관으로 명칭하기도 한다. 함순섭, 「新羅 樹枝形帶冠의 退化型式 設定」, 『東垣學術論文集』 3집(2000), pp. 59-83.

⁶⁶ 신호용·이상수, 『동해 북평공단 조성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1994), pp. 249-251.

⁶⁷ 姜鍾薰, 「神宮의 設置를 통해 본 麻立干時期的 新羅」, 『한국고대사논총』 6집(1994), p. 202.



도 16 銅製冠, 東海 楸岩洞古墳, 신라, 7세기

의 태백산에 직접 親祀를 지내기도 하였고,⁶⁸ 味鄒王이 동해변을 순행하다가 望祭를 지낸 기록이 발견된다. 이후 5세기 중엽까지는 순행이 없다가⁶⁹ 자비마립간12년(469년)에 순행이 시작되어 5세기후엽의 소지마립간때에는 선산, 영주의 북부지역을 순행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순행 기사를 참고하면 신라왕의 순행시에 드린 지역제사에 신라왕보다 재질이 떨어지는 신라관을 쓰고 이 제의에 동참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⁶⁸ 『三國史記』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5年 冬十月, 北巡, 親祀大白山

⁶⁹ 『三國史記』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3年 春二月, 東巡幸望海.

VI. 맺음말

초대형화된 봉토를 가진 황남대총은 마립간 시대 고대 국가 형성단계에서 초기 김씨 왕권의 위세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축조된 고분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 황남대총의 남분에서 직각 맞가지식의 신라관이 출현하여 북분에서 완성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바로 이 황남대총 단계가 시조묘의 권위가 강화된 내물왕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씨집단이 두각을 나타내며 왕위를 고정계승하던 마립간시대를 확립한 내물왕대에는 특히 시조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여 이 무렵 시조묘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왕들은 실제 巫는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天神의 대리자라는 종교적 권위를 가졌다. 그리고 이 천신과 소통하는 권위는 조상숭배의식과 연결된 시조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사회에서 시조묘제사는 지배자를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결시키고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 특수 의례였다. 『三國史記』에는 즉위의례로 판단되는 시조묘 제사를 신라왕이 親祀한 기록이 빈번하게 記載되었다. 또한 왕실이 독점한 시조묘 제사권의 일부를 여성왕족에게 나누어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료를 통해 알아낸 시조묘의 執典 구성원과 신라관의 고고학적인 출토상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왕과 왕비를 비롯한 일정한 계층의 귀족들은 나무와 사슴뿔 입식으로 장식된 신라관을 착용하고 시조묘 제사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 입식인 나무와 사슴뿔 장식은 시조묘의 성격과 이 제사를 친사했던 신라왕의 치세이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대 사회에서 나무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수와 새로운 생명 탄생을 상징한다. 신라관의 나무도 기본적으로 우주수와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군자의 덕으로 분열된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連理木 개념이 가미되었다. 또한 사슴뿔 장식의 경우 천상과 지상을 잇는 전통적인 宇宙鹿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만, 통치규범과 관련된 祥瑞의 개념이 내포되었다. 내물왕대에 등장한 풍요와 관련된 一角사슴에 대한 기사를 이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관은 시조왕의 권위를 이어받아 천상과 소통하는 天神의 권위를 상징하면서도, 당시 농업사회의 발전된 시대적 요구에 따라 君子の 德性이 포함된 통치개념과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관은 박씨와 석씨 집단을 누르고 국내외적으로 도약을 하였던 김씨 마립간시대에서 국가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신구로 이해할 수 있

다. 신라에서 이루어진 금·금동관을 비롯한 각종 금속제 장신구 착장문화는 이후 백제와 일본으로 확산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한다.

* 주제어: 신라관, 積石木槨墳, 皇南大塚, 始祖廟 祭祀

The Formation of the Silla Crown and The Rite in Sijomyo (始祖廟祭祀)

Lee Song-ran

The appearance of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積石木槨墳) coincided with the period when maripkan (麻立干) was used as the title of the king (王號) and Silla was already into the stage of solidifying its centralized dynastic system. In the maripgan period (in particular, during the 4th century) the Kim clans became the most powerful ruling group, oppressing the Paks and the Seoks.

Hwnagnam Daech'ong (皇南大塚) with two mounds has attracted a considerable attention for its size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ts burial objects. Considering its size and burial objects, Hwangnam-dech'ong is estimated as the tombs of king and queen in the early maripgan period.

In the southern mound, the deceased wore a new type of gilt-bronze crown which was decorated with three tree-shaped uprights. The uprights were divided into seven boughs. Four gilt-crowns of the same type were also excavated inside the tomb-chambers.

The northern mound, probably the tomb of the king's wife, was built later than the southern one. The gold crown of the northern mound has five uprights which consist of three common tree-shaped uprights on the front side and two antler-shaped uprights on the back. The crown of the southern mound became the standard type.

At that time when the Silla crown buried in Hwnagnam Daech'ong, the crown of the

Silla style began to be buried in the marginal regions of Kyoungju (慶州), including Taegu (大邱), Kyoungsan (慶山), Pusan (釜山), etc. This geographical distribution can be interpreted that these areas became the territory of the Silla kingdom and the crown of the Silla style played the role of regalia in the arena of politic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upposed that the crown of the Silla style would be used for special use. Thu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use and significance of the crown in the social context of the Silla kingdom.

The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way in which the ruling group looked at the rite in Sijomyo (始祖廟 shrine for the founder of a dynasty) in the maripkan period of the Silla dynasty. The Kims tried to establish the authority and superiority of the royal family and claimed to be the only descendants of the heavenly god. The rite in Sijomyo had an important system of royal and religious symbolism. In an ancient text, *Samuksaki* (三國史記), there is a spiritual story about Sijomyo in the times of King Nemul.

The rite in Sijomyo is thought to be an enthronement ceremony by which the new king would take over the ancestral spirit. So, the symbolical decoration of the crown seems to have deeply to do with the spiritual authority of the ruler as a solar deity. In particular, the tree of the crown can be regarded as the Cosmos tree that symbolizes the renewal of life. It can be supported by the historical records on 'the intertwining tree (連理木)' in *Samuksaki*. There are also a picture of a intertwining tree and related words carved on the roof slab of the Wu Laing Shrine (武梁祠). The record is as follows: "Intertwining branches grow when a ruler's virtue is pure and harmonious, and the eight directions are unified into a single family"

Examinations of the iconography of bird-antler motif and historical records about auspicious deer reveal that antler motif of the crown represented a supernatural mounts on which the dead ruler would ascend to paradise and could bless the people. In this sense, the crown can be seen as a concrete canonization of the ancestral spirit, a protector of the nation.